

사회

광주 전통 문화상품은 어디서...

예술의 거리 중국산 천지

관광객·외국인 공예품·골동품 사러다 황당

상인회장 "정체성 지적 많지만 어쩔 수 없어"

광주지역 A병원에 근무하는 박 모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병원을 찾은 외국 손님들이 한국전통공예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해 예술의 거리로 안내, 부채와 사기 그릇을 구입했는데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광주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인 동구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팔리는 기념품과 문화상품 상당수가 값싼 중국산이어서 예향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황이 계속되면서 일부 상인들이 국산보다 저렴한 외국산 진열을 늘리면서 자칫 전통 문화상품과 외국산의 역전현상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공예품과 공방, 골동품·고서점, 화랑 및 필방 등 기념품과 문화상품을 파는 상점은 예술의 거리에만 50여 곳. 이곳 상인들과 관광객에 따르면 일부 상가에서 파는 상품에 값싼 중국산을 비롯해 외국산이 다수 섞여 있다는 것이

다. 토산품 및 민속가구를 파는 한 상인은 "민속공예품을 팔고 있는데 국산은 가격이 비싸다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워 외국산을 들여 놓고 있다"며 "판매 물품 중 30% 정도는 외국산이고, 5000원 이하의 저가 상품은 거의 중국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통물품 구입자 광주를 찾았다는 최고(43·순천시)씨는 "전통공예품은 값이 비싸 엄두도 못 내고 발길을 돌렸다"며 "조금 저렴한 것을 찾아 둘러보니 곳곳에 중국산 부채와 찻잔, 외국 공예품이 널려있어 씁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찾는 예술의 거리에 전통의 향기와 남도의 멋이 배어있는 문화상품이 많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광객 한모(여·48·서울시)씨는 "예술의 거리 방문 기념으로 기념품을 구입했는데 중국산이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수입개방으로 중국산이 국내에

서 널리 판매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기념품을 많이 팔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옛 생활용품 등을 파는 골동품 상점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품 중 50% 이상은 외국산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 상인은 "수요도 없고 골동품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서울 등서 대규모로 물건을 들여오고 있다"며 "골동품은 솔직히 대다수가 외국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이와관련 인천한 예술의 거리 상인회장은 "일부 점포에서 중국산 등 외국산 상품을 팔고 있어 전통문화·예술의 거리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상인 개개인의 문화의식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인천 광주시 문화예술진흥담당은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며 "상인들도 문화·예술적 마인드를 갖추고 기존 관광상품과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선원 난동에 해경 또 참변

인천 소청도 해상

1명 사망 1명 부상

지난 2008년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상에서 목포해경 직원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단속에 나섰다 중국선원의 폭행으로 사망한 데 이어 또다시 경찰관이 희생됐다.

12일 오전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벌이던 해양경찰관 2명이 중국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인천해양경찰은 중국어선 요급어 15001호 선장 칭다위(42)씨를 살인 및 상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나머지 중국선원 8명도 붙잡아 어선과 함께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평호(41) 경장 등 특공대원 2명은 이날 오전 6시59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66t급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선장 칭다위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왼쪽 옆구리를 다친 이 경장은 해경 헬기로 인하여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으나 숨졌고, 복부를 찔린 이 낙훈(33) 순경은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당시 48세)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로 추락사했다.

경비함정 3005함에서 고속단정(RIB보트) 2척에 옮겨 탄 이 경장은 동료 특공대원 7명과 함께 어둠 속에서 섬광탄을 투척하며 중국어선에 올라 선원 8명을 제압했다. 이어 특공대원 3명과 조타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유리창을 깨며 거세게 저항하는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번을 당했다.



해경특공대원을 유리로 찢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어선 선장이 12일 인천 인하여원에서 치료를 받고 인천해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다. 대원 모두는 밤잠 조끼를 입은 상태였지만 조끼가 덮이지 않은 부위인 옆구리와 배를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관 희생소식을 전해들은 목포지역 어업인들은 "최근 불법어로 중국 어선들의 담보금을 높이고 해경 등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지

만 여전히 불안하다"라며 "정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2일 오전 장신현 주한 중국대사를 초청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합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458) 김종두



농구하다 다치면 보험금 못받는다 대법원 판결

신체접촉이 많은 축구나 농구를 하다 부상을 당했어도 경기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농구 경기 중 충돌로 이가 부러진 정모(35), 한모(3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접촉한 장소와 부딪혀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일반적으로 농구는 신체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당시 경기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춰 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9년 8월 야외 농구장에서 경기하던 중 앞니 두 개를 포함한 치아 4개가 탈락되는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 클럽서 성추행

○...스트레스를 풀려고 클럽에 갔다가 술집에 한국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서형.

○...1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하남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팔 출신 S(22)씨는 지난 10일 자정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모퉁에서 춤을 추던 A(여·27)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종업원에 붙잡혔다는 것.

○...경찰 조사과정서 S씨는 "일이 힘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고국에 돌아야 할 가족이 여럿 있으니 추방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나눔 송년회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간부회는 12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천연핸드크림, 천연비누를 판매하는 송년 사랑나눔행사를 가졌다. 나눔행사 수익금으로 저소득가구에 연탄 1000여장을 배달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문진원 채용비리 그림 받은 부군수 수사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남문화산업진흥원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전남 모 부군수의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지역 모 자치단체 A부군수가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 인사 과정에서 5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경

찰은 최근 A부군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조만간 A부군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부군수는 지난 2009년 전남도 근무 당시 문화산업진흥원 인사에 개입했으며, 경찰은 A부군수의 당시 상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채용된 문화산업진흥원 B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현 전남도의회 의원의 딸인 B씨는 문화산업진흥원 취직 당시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으며, 이번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3~4명으로 압축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차보험사기에 조폭

전남경찰, 4명 영장·67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은 1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최모(27)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모(26)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목포지역에

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 후배들과 함께 2009년 6월 목포시 죽곡동 일방통행로에서 승용차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 11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장인 송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자동차

정비업자와 짜고 차량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품을 교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자동차 정비업자 및 견인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튜닝 동호회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3년간 모두 18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은 윤씨를 포함해 사기 피의자 253명을 적발해 이 중 41명을 구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소셜커머스로 조폭

광주광안경찰청은 12일 소셜커머스 업체를 운영하며 판매 대금을 가로챈 조폭 이모(25)씨를 형형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인 이씨는 소셜커머스 전자상거래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월께 장모씨로부터 위탁받은 피부샵 쿠폰의 판매대금 4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폭력조직

쿠폰대금 450만원 가로챈

20대 폭력조직원 검거

이씨는 소셜커머스 북이 일자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운영난을 겪으면서 판매대금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2년 공무원 합격실명회 2012년 개강: 1월 2일
이것만 알면 합격한다!
일시: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
대한민국 대표 고시학원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